

## 「베이징(北京) 13·5 서비스업 발전 계획」의 주요 내용

김주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

### 주요내용

- (현황) 최근 베이징 발전개혁위원회에서 「베이징시 13·5 서비스업 발전 계획」(이하 '발전 계획')을 발표함.
- (원인과 분석) '발전 계획'에서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△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육성 △ 대외개방 확대 △ 징진지 서비스 시장 협동발전을 제시함.
- (전망과 시사점) 베이징이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침인 만큼 한국은 베이징의 서비스 수요와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투자와 협력을 추진해야 함.

## 1. 이슈 현황

### ■ 최근 베이징 발전개혁위원회에서 「베이징시 13·5 서비스업 발전 계획」(이하 '발전 계획')을 발표함.1)

- 베이징은 중국 31개 성·시(省·市) 중 GRDP 대비 3차 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서비스 주도형 경제구조가 뚜렷함.
  - 2016년 베이징의 GRDP 대비 3차 산업 비중은 80.3%(중국 평균 51.6%)를 기록하였고, 2017년 1분기에는 81.7%까지 상승하면서 서비스업의 경제 성장 기여율이 77.7%에 달함.2)
- 베이징시의 서비스산업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이나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.
- 이에 '발전 계획'에서는 13·5 계획기간(2016~2020년) 서비스업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.

1) 北京日报(2017.04.13), 「《北京市“十三五”时期服务业发展规划》印发」.

2) 北京市统计局(2017.05.17), 「服务业运行稳中趋缓 新旧动能转换稳步推进——2017年1季度北京市第三产业运行情况分析」.

그림 1. 베이징 산업별 규모(부가가치 기준)

(단위: 십억 위안, %)



자료원: CEIC

표 1. 베이징 서비스업 12·5 계획기간 성과와 13·5 계획기간 발전목표

지표	12·5 성과1) (2015년 기준)	13·5 목표
GRDP 대비 3차 산업 비중	79.7%	80% 이상
GRDP 대비 생산자 서비스업2) 비중	약 50%	53%
서비스무역 총액	1,300억 달러	2,000억 달러

자료원: 北京市发展改革委(2017), 「北京市“十三五”时期服务业发展规划」

주: 1) 12·5 계획기간(2011~2015년), 13·5 계획기간(2016~2020년)

2) 생산자 서비스업은 생산된 서비스의 수요 주체가 생산자(기업)인 경우를 지칭하며, 최종소비보다는 생산 및 유통과정에 투입되는 서비스업을 의미함. 소비자 서비스업은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함.

## 2. 원인과 분석

■ 발전 계획에서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△ 지식기반서비스 산업<sup>3)</sup> 육성 △ 대외 개방 확대 △ 징진지<sup>4)</sup> 서비스 시장 협동발전을 제시함.

- 주요 육성산업으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이 다수 포함되어있어 이를 통한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할 방침
- 「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확대 종합 시범정책 실시방안」(이하 ‘실시방안’)<sup>5)</sup>과 연계하여 6대 중점분야에 대한 개방조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, 중점분야 외의 서비스업 개방 목록을 추가해나갈 계획임.
  - 베이징이 서비스업 개방확대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‘실시방안’을 추진한지 약 2년이 경과하였고, 141개의 개방조치 중 118개가 추진되어 전체 업무의 80%를 완성함.<sup>6)</sup>
- 베이징, 톈진(天津), 허베이(河北) 간 일부 서비스 분야의 통일된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, 공동 플랫폼을 조성하여 서비스 시장의 협동발전을 추진

3)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을 집약적으로 생산·가공·활용하고,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(산업통상자원부),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, 정보서비스업, 문화서비스업 등이 포함됨.

4) 베이징, 톈진, 허베이 세 지역을 의미

5) 2015년 베이징시는 중국 내 첫 번째 서비스업 개방확대 시범도시로 지정된 후, 「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확대 종합 시범정책 실시방안(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实施方案)」을 발표하였음. 3년간(2015~2018년) 시행되는 개방확대 정책은 서비스업의 진입규제 완화와 관리·감독체제 개혁을 통해, 베이징 서비스업을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 가능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.

6) 北京市人民政府(2017.01.08), 「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工作已经完成80.1%」.

표 2. 주요 서비스업 발전 정책

정책	세부 내용
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육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△정보 △과학기술 △비즈니스 △건강·양로 △관광 △문화창의서비스 등 다수의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육성방향 제시</li> <li>○ (과학기술서비스) 과학기술서비스업 중점 클러스터를 구축, 미래과학성 등 기존 플랫폼을 활용하는 동시에 첨단산업기능구 내 과학기술산업종합기지를 구축하여 정보기술, 에너지, 바이오 분야 등의 기술개발 및 응용 활성화</li> <li>○ (문화창의산업) 문화창의산업의 브랜드화, 규모화, 시장화 발전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. 또한 인터넷 문화콘텐츠 서비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, 영화·음악 창작을 장려하여 문화 서비스 수출 확대</li> <li>○ (정보서비스) 클라우드 컴퓨팅, 빅데이터, 사물인터넷, 모바일 인터넷 등 차세대 정보기술의 광범위한 응용을 추진. 또한 정부 웹사이트, 주요 비즈니스 웹사이트를 IPv6*로 전환하여 차세대 인터넷의 전면적 확대를 실현</li> </ul>
대외개방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6대 중점분야(△과학기술 △인터넷·정보 △문화·교육 △금융 △비즈니스·관광 △건강·의료 관련 서비스)에 대한 외자 지분비율과 경영 자격·범위 제한을 완화하는 시범 조치 확대할 방침</li> <li>- △소프트웨어·정보서비스 △집적회로 설계 △에너지 절약·환경 보호 △창업투자 △지식재산권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 진입을 지원</li> <li>- 전자상거래에 대한 외자 진입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할 계획</li> </ul>
징진지 서비스 시장 협동발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세 지역 간 금융투자, 정보서비스, 기술 연구개발 분야의 통일된 정책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며, 주요 서비스 분야에 대한 협동발전 방안 제시</li> <li>○ (금융서비스) 협동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징진지 개발은행 설립 추진</li> <li>○ (관광서비스) 협동발전 플랫폼을 조성하여 세 지역의 관광자원을 통합</li> <li>○ (정보·기술서비스) 징진지 산업기술혁신전략협회를 설립하고, 통합된 기술거래시장 조성하는 동시에 세 지역 간 과학기술 성과 수익분배 시스템을 구축.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거래 중개 서비스 체계를 최적화하고 지식재산권 시장의 융합발전 추진</li> </ul>

자료원 : 北京市发展改革委(2017), 「北京市“十三五”时期服务业发展规划」

\* 주: IPv4를 대폭 확장한 차세대 인터넷주소 체계, 인터넷기술처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인터넷 규약으로 IPv4 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, 동시데이터 처리 용량, 인터넷 주소체계 등을 대폭 확장한 차세대 인터넷의 핵심기술

### 3. 전망과 시사점

■ 베이징이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침인 만큼 한국은 베이징의 서비스 수요와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투자와 협력을 추진해야 함.

□ 베이징의 서비스 개방조치는 한·중 FTA 서비스 양허 조치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도를 보이고 있어 해당 분야로의 진출·협력기회를 모색해야 함.

- 문화서비스 분야에서는 외국인투자자가 100% 지분 출자로 공연연출중개회사 설립이 가능해졌음.<sup>7)</sup>
- 관광서비스 분야에서는 기존에 제한되었던 외국인 투자여행사의 아웃바운드 관광 업무를 허용함으로써 제3국으로 나가는 중국인 여행객에게 관광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음.<sup>8)</sup>

7) 한중 FTA 서비스 양허, 한국투자 49%로 제한

8) 한중 FTA 서비스 양허, 한국 관광 회사의 아웃바운드 관광 사업 운영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데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명시

- ‘발전 계획’에서 추가 개방을 언급한 분야에 대한 세부 개방조치는 발표되지 않아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
- ‘발전 계획’에서 개방 조치를 시행 중인 6대 중점분야 외 △소프트웨어·정보서비스 △집적회로 설계 △에너지 절약·환경 보호 △창업투자 △지식재산권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힘. 

#### 알립니다

- CSF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에서 발간하고 있으며, 저작권 정책은 ‘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’에 따릅니다.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·변경·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.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△출처 표기 △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.
- 본 원고에 대한 글, 그림,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,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